



수업 내용 조직화 및 학습내용 전달 방식의 전환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전략

학습동기는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좋은 수업을 이야기할 때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교수방법을 논하는 대부분의 교재가 ‘어떻게 학습 동기를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학습동기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학생은 지적 욕구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습동기로 나타나게 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면 학생의 이런 학습동기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학습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수업전략을 쓰게 된다면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반적 원칙을 종합하면, 수업 중에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수준의 교수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다. 이를 항목화해 보면 ① 수업 내용의 조직화 ② 학습내용 전달방식의 전환 ③ 학생에 대한 이해 ④ 교수자와 학생의 자기점검 ⑤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촉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① 수업 내용의 조직화 ② 학습내용 전달방식의 전환은 수업의 구조나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이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1. 수업 내용의 조직화

(1) 수업목표 분명하게 알려주기

수업시간에 해당 수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면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한 지적 지침으로 삼고, 이를 통해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에게 교과목 ‘지도(road map)’ 를 제공한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각 수업의 개요(큰그림)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업 전략이다. 학부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에서 제공되는 개별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도, 지식들 간의 연관성과 지식과 수업목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교과에서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 시간 중에 지식들간의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③ 강의시간 활용에 대해 설명하기

매 강의시간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설명에는 매 시간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토론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질문시간이 따로 있는가? 의문이 생기면 그냥 질문해도 되는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수업내용 조직화 전략

① 다른 교과와의 연관성 보여주기

해당 수업이 다른 수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교과과정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단순히 말로 하기보다는 학문의 관련성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그림은 강의 첫 시간에 보여주면 좋다.

② 주요 개념이나 주요 토픽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이 방식은 한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의 하위 주제가 많은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하나의 주제에서 여러 갈래의 주제가 나누어지는 경우, 학생들은 주제와 하위주제를 혼돈하기 쉽다. 따라서 주제-하위 주제 간의 관계를 개념도를 통해 알려주어서 학생들이 그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③ 주의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내용을 10~15분 단위로 자르기

학생들의 수업 중 주의집중도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수업 시작 후 약 10~15분이 경과하면 주의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 계획 시 세부 주제들을 10~15분 단위로 배치한다. 각 세부주제 내용이 전달되는 10~15분 동안 내용 전달, 질문이나 학생 참여, 내용 요약의 단계가 모두 포함되도록 배치한다.

④ 90/20/8의 법칙

이 법칙은 어떤 교육단위도 90분을 넘어서는 안 되고, 20분마다 수업의 변화를 주어야 하며, 8분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업 중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려면 시간적 배분과 참여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⑤ 지속적 강화의 법칙

배운 내용을 어떻게 복습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1번 접하면 30일 후에는 10% 미만을 기억하지만 그 내용을 6번 접하게 되면 30일 후에도 90%이상 기억한다고 한다.

어떤 내용을 소개한 후 10~15분 후에 일차 요약을 하고, 수업이 마칠 때 다시 요약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리뷰하며, 해당 단원이 끝날 때 다시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등 간격을 두고 계속 복습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 내용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될 것이다.

2. 학습내용 전달방식의 전환

(1) 긍정적인 교실환경의 조성: 수업규칙 정하기

수업분위기가 혼란스러우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정돈된 환경이 필요하다 이 정돈된 환경은 수업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강의 첫 시간에 학습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강의실 규칙'을 열거하고 이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논의할 규칙은 수업시간에 대한 규칙, 출석에 대한 규칙,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칙, 핸드폰 관리에 대한 규칙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첫 시간에 수업에 학생과 함께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2) 참여를 통한 주의집중 전략

학생들의 참여와 수업 중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면 학습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수업 중 가능한 학생들이 많이 말하고, 그룹 활동 등을 통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면 그 만큼 수업의 효과는 상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같이 효과적인 학생의 수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강의 시작할 때와 마무리 할 때, 학생 참여시키기

매 시간 강의 시작과 함께 지난번 강의내용을 요약하고, 오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게 된다. 이때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 한명은 지난 강의를 요약하게 하고, 다른 한명은 그 날의 강의내용을 요약하게 하여 학생들이 강의 진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도 학생에게 5분 정도의 한정된 시간 안에 요약을 마치게 하고, 수업에 따라서는 수업 시작 전에 책임을 맡은 학생이 미리 칠판에 지난 시간과 그 시간의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것도 좋다.



② 교재 파악하고 설명하기

수업시간에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참여 방법이다. 먼저 약 5~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한다(교재 내용이 많을 경우는 조별로 혹은 앉은 자리별로 교재 중 한 장 또는 특정 부분의 내용만을 살펴보게 한다). 5~10분 경과 후 학생을 지명하여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게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 학기 배울 내용을 교수자가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교재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다. 특히 학기 초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한 학기 사용할 교재 내용을 미리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편)(2004), 교수법 가이드 1
 법 파이크 (2004), 창의적 교수법, 서울:김영사